

三灘 李承召의 詩世界

李 圭 虎*

I. 序 言

陽城君 三灘 李承召(세종 4, 1422~성종 15, 1484)는 筆者의 第17代 先祖이다. 成倪의 「三灘先生詩集序」를 보면,

“公(三灘一필자 註)은 文治가 전성한 때를 당하여 詩文을 배웠는데, 詩文이 다 優贖하여 같은 무리들보다 멀리 뛰어나, 四佳·乖崖·私淑齋 3명의 큰 老壯과 더불어 한 때에 나란히 달려, 名聲이 서로 상하를 다뒀다. 온갖 장르를 모으고 크게 온전함을 이룬 것에 미쳐서는 다들 공을 으뜸으로 삼았다.”¹⁾

했으니, 三灘은 朝鮮初期 이름난 詩人인 徐居正, 金守溫, 姜希孟과 함께 四頭馬車로 名聲을 나란히 한 것이다. 더구나 모든 詩體를 다 모으고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詩壇에서의 三灘의 위치는 자못 높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存의 韓國漢文學史를 보면, 三灘에 대한 기술이 너무 疎略하다. 기껏해야 集賢殿學者들을 소개하는 항목이나, 徐居正을 說明하는 자리에 곁들여 나타남이 고작이며,²⁾ 詩人으로 소개된 경우도 生平정도가 짧막하게 기술되었을 뿐이다.³⁾ 이처럼 三灘이 文學史

* 同門·대구대

- 1) 『虛白堂文集』卷八, 序(李朝名賢集 2,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7), pp. 122-23. “公當文治全盛之時學爲詩文, 詩文俱優贖迥出等夷, 與四佳乖崖私淑齋三大老, 齊驅并駕於一時, 名聲相上下, 至如集衆流而成大全者, 皆以公爲稱首”
- 2) 金○○,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叢書 I, 朝鮮語文學會, 1931), p. 120 참조. 李家源, 「韓國漢文學史」(民衆書館, 1961), p. 166, p. 180, p. 184 참조.
- 3) 文叢奎, 「韓國漢文學史」(正音社, 1961), pp. 171-190 참조.

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成規의 『三灘先生詩集序』에 의하면,

“세 노인(四佳·乖崖·私淑齋—필자 註)의 시문은 모두 밝혀지고 가려져 세상에 간행되었는데, 오직 공의 작품은 수록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識者가 크게 한탄하지 않겠는가? 이제 공의 遺稿 약간의帙을 보니……”⁴⁾

하여, 三灘先生의 詩 대부분이 이미 逸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록이 또 보인다.

“성종의 학문은 깊고 넓으며, 文詞는 아득히 넓다. ……또, 徐居正의 『四佳集』 金守溫의 『拭堦集』, 姜希孟의 『私淑齋集』 申叔舟의 『保閑集』을 모았는데, 유독 李承召 및 나의 형, 文安公 成任의 詩文만은 일실되어 간행치 못했으니 한스러운 일이다.”⁵⁾

이 밖에 洪萬宗이 『旬五志』에서,

“우리 동쪽 나라는 신라 말엽부터 李朝에 이르는 동안 名公 碩學이 지은 글로 세상에 전해진 것은 이루 적어내지 못할 정도다. 이제 뚜렷한 것을 골라서 類別하여 그 문집의 이름을 기록하고, 문집의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도 다 類別하여 썼다. 어쩌다 그 姓을 쓰지 않은 것은 그 글은 불만하여도 그 인물은 취할게 못되어서다.”⁶⁾

하고는 『三灘集』(李承召 國朝)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三灘의 詩集이나 文集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三灘의 文學史的 位置는 그의 詩文이 대부분 逸失됨으로써 부각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그의 詩世界를 照明하기 위해서는 몇몇 곳에 散在되어 있는 그

4) 『虛白堂文集』(앞의 책, p. 923).

“三老詩文皆蒙 顧拔而印行于世, 惟公之作無人收錄, 豈不爲 識者之浩歎.”

5) 『慵齋叢話』卷之二.

“成廟學問淵博, 文詞灑灑……又聚徐剛中四佳集, 金文良拭堦集, 姜景醇私淑齋集, 申泛翁保閑齋集, 惟李胤保及我文安公詩文, 逸失未印可恨也.”

6) “我東自羅季至國朝, 名公碩士之作爲文章以傳於世者, 不可勝記, 今取表表者類錄其集號, 而集號之外, 又有別號者, 亦皆類而書之, 或不書其姓者, 雖其文章可觀, 其人不足取也.”

〈表 I〉 各選詩集에 收錄된 三灘詩

番 號	詩 體	選 詩 集 詩 題	東文選	國朝詩刪	笑 雅	大東詩選
①	五古	二月十二日入京十四日 朝謁奉天門	○	×	×	×
②	七古	奉送許陽川琮巡察平安 道以繫北寇	○	×	×	×
③	〃	山海關	○	×	×	×
④	〃	太監鄭同第宴	○	×	×	×
⑤	〃	富林君松巖詩	○	×	×	×
⑥	〃	仙山圖	○	×	×	×
⑦	〃	漢都十詠	○	×	×	×
⑧	七律	燕	○	○	○	○
⑨	〃	秋懷四首贈金文學壽寧求 正	○	×	○	×
⑩	〃	題丈人觀道士壁	○	○	○	○
⑪	〃	城上	○	×	×	×
⑫	〃	秋晚登城北樓	○	×	×	×
⑬	〃	客愁	○	×	×	×
⑭	〃	題齋壁	○	×	×	×
⑮	〃	次姜晉山遯津寬住持專上 人詩	○	×	×	×
⑯	〃	二妃廟(在三叉河上)	○	×	×	×
⑰	〃	漁陽三首	○	×	×	×
⑱	〃	灤河岸上有小石表書孤竹 故城	○	×	×	×
⑲	〃	洪同知友菊齋	○	×	×	×
⑳	〃	贈僧	○	×	×	×
㉑	〃	題金參判子固紐雙溪齋二 首	○	×	×	×
㉒	〃	題朴淵瀑布圖	○	×	×	×
㉓	〃	早朝	×	○	○	○
㉔	七絕	題花旗贈僧	○	×	×	×
㉕	〃	題畫蟬	○	×	×	×
㉖	〃	送丁正言克仁辭官還鄉	○	×	×	×
㉗	〃	留義州待使臣次朴判書元 亨韻	○	○	○	○

28	〃	松	○	×	×	×
29	〃	松都三首	○	×	×	×
30	〃	美人圖	○	○	○	○
31	雜體	次益齋瀟湘八景詩韻	○	×	×	×

* ○표는 收錄, ×표는 未收錄임.

** 일련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임.

의 詩文과 그에 대한 逸話 및 그의 詩에 대한 批評을 보아 살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에 本稿에서 이용한 三灘의 詩文을 圖表로써 제시해 본다.

〈表 I〉을 보면, 三灘의 詩가 『東文選』에 30편, 許筠의 『國朝詩刪』에 5편(이 중 3편에 批評이 加해져 있다), 南龍翼의 『箕雅』에 6편, 그리고 張志淵이 編輯한 『大東詩選』에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31번의 「早朝」가 『東文選』에 누락되어 있으며, 五言絶句와 五言律詩가 한편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이로부터 三灘은 七言에 特長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여하튼 現在까지 傳하고 있는 三灘의 詩는 31편이 全部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의 詩世界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本稿가 지닌 制約이다.

한편, 三灘의 文을 圖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表 II〉 『東文選』에 收錄된 三灘의 文

番號	文體	題 目	番號	文體	題 目
32	箋	進五禮儀注箋	37	序	送弘文館校理金君訴奉使日本詩序
33	記	洗心亭記	38	〃	略太平廣記序
34	序	四雨亭詩序	39	青詞	雷聲普化天尊醮
35	〃	送法岡上人遊金剛山詩序	40	〃	太一醮
36	〃	送永川卿柳松京訪序	41	碑銘	高靈府院君申叔舟文忠公墓碑銘 并序

箋, 記, 序, 青詞, 碑銘으로 남긴 10편의 글이 『東文選』에 올라 三灘의 詩論과 詩評의 片鱗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 「眞逸遺稿 跋

文』이 『眞逸遺稿』에 실려 있어⁷⁾ 三灘의 文은 모두 11편이 된다.

以上과 같은 三灘의 詩文과 그밖의 三灘詩를 評한 글들을 참조하면서, 本稿에서는 三灘의 詩世界를 살피고 아울러 그의 詩史의 位置를 點檢할 것이다.

II. 生涯와 爲人

李承召는 陽城李氏 一侍中派의 九世 李思謹의 三子로 태어났다.⁸⁾ 記錄에 依하면,⁹⁾ 그의 字는 胤保이며 三灘을 號로 하였고 본관은 陽城이다. 世宗 丁卯年(世宗 29年, 1447)에 文科에 壯元及第, 三場에 연이어 壯元하고 重式에 합격하였다. 辛未年에 휴가를 얻어 湖堂에 가서 글을 읽었다. 佐理功臣이 되고 陽城君으로 책봉된 바 있다. 벼슬은 禮曹判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文簡公이다. 또한 行狀에 의하면,¹⁰⁾ 三灘은 文章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책을 많이 읽고 오래도록 잘 기억하여, 禮樂·兵刑·陰陽律曆·醫藥·地理 등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다.

三灘은 集賢殿 出身學士로서 書堂에서 賜假讀書하는 영광을 누린 當代의 文望이었음이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세종이 文治에 힘쓰는 만고에 뛰어나서 경자년에 비로소 집현전을 설치했다. ……수년 사이에 요직에 있는 이는 모두 집현전에서 나왔다. ……參贊 李承召…… 등이다.”¹¹⁾

7) 『眞逸遺稿』 卷之四(李朝名賢集 2, p. 749).

8) 『陽城李氏柱國公十六世孫派譜』(1983, p. 60 참조).

9) 『燃藜室記述』 卷之六, 成宗朝, 成宗朝名臣條.

“李承召字胤保號三灘陽城人, 世宗丁卯文魁, 三場壯元重試, 辛未賜暇湖堂佐理功臣陽城君, 禮曹判書, 文簡公”

10) 『燃藜室記述』, 같은 天.

“公以文章名世, 博覽強記, 凡禮樂兵刑陰陽律曆醫藥地理靡不通貫”

11) 『筆苑雜記』 卷之一

“世宗勵精文治, 高出萬古, 歲庚子始置集賢殿……數年間布列顯要皆出於集賢, 如……李參贊承召…….”

“세종 때에 비로소 서당을 설치해서 휴가를 주고 글을 읽도록 하였다. 그리 하여 후일에 크게 임용하려 했는데, 그때는 길에 가서 있는 일이 많았다. …… 또 다음은 이석형·최항·성간·이영서·하위지·이개·김수온·서거정·이승소·강희맹이 서로 잇달아 하였다.”¹²⁾

“詔使의 價待는 반드시 한 시대 文名있는 자를 택하였다. 박원형과 허중은 아울러 儀表와 禮貌로써 증화사람에게 기림을 받았다. 그러나 박이 芳洲와 수응한 것과, 허가 圭峯에게 담한 것은 모두 종사관 李三灘과 申三魁가 대신 지은 것이었다.”¹³⁾

이처럼 文章으로 名世했던 三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徐四佳의 그늘에 가려 文衡 한번 잡지 못하는 不運을 겪어야만 했다.

“……公(徐居正—필자 註)이 26년 동안 오래 文衡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金宗직·진산 강희맹·삼탄 이승소와 같은 이들이 모두 할 수 없었다.”¹⁴⁾

그러나 詩人으로서의 三灘은 徐四佳에 못지 않게 詩名을 날렸다. 南龍翼의 『壺谷詩話』를 보면,

“당시 李三灘, 姜晉山은 同類로 자기 徐四佳보다 뛰어난 바가 있었으나, 그 큰 것은 다 그보다 못했다.”¹⁵⁾

하여, 三灘·晉山·四佳가 서로 伯仲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명백해 질 수 있다.

“仁齋 강희안은 젊을 때부터 재주가 있었다. 만년에 양주 樓院에 올라가서 3편을 지었는데, 그 중 한편에 이르기를, 「혼한 산 어디엔들 오두막 못지오라. 청산과 마주 닮아 한 술 길게 뽑어 보네. 벼슬살이 10년에 다 늙었으니, 백발

12) 許筠, 『惺翁識小錄』上,

“世廟朝始設書堂賜暇讀書爲他日大用地, 其時多在山寺……次則李石亨崔恒成侃李永瑞河緯地李璫金守溫徐居正李承召姜希孟相繼爲之”

13) 許筠, 위의 책,

“價待詔使必擇一時文望, 朴元亨許琮俱以儀表禮容見獎於華人, 朴之酬芳洲許之答圭峯皆從事官李三灘申三魁之代述也” 이와 같은 기록은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五, 事大典故, 價使 條에도 있다.

14) 『燃藜室記述』卷之六, 睿宗朝, 睿宗朝文衡, 徐居正條.

“公秉文衡二十六年之, 久故如佔傳金宗直晉山姜希孟三灘李承召皆不得爲”

15) “當時 李三灘姜晉山一體, 各有長於四佳而其大皆不如”

로 귀거래를 짓게하지 말라.]하였다. 永川君 定の 자는 安止인데, 이 시를 보고 절하고 또 비평하기를, '이 시는 몹시 밍진하니, 徐가 아니면 李의 솜씨일 것이다.'라고 써 두었다. 당시 서거정과 이승소는 시인으로서 제 1인자였기 때문에 定이 탄복한 것이다."¹⁶⁾

다음의 일화는 三灘의 文名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斯文 李尹仁, 有仁 형제가 梨峴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영천군이 술에 취하여 평복으로 길가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그를 凡人인 줄 알고 말에서 내리지 않으니, 영천군이 사람을 시켜 불러다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왕손을 보고 어찌서 禮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尹仁에게 ‘너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기를 ‘문사요’ 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榜에 급제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급제할 때의 장원은 李承召였소’하니 君이 말하기를 ‘네가 『登白山賦』를 아는가?’ 하였다. 윤인이 그것을 외니 君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보냈다고 한다.”¹⁷⁾

위의 기록에 나오는 「登白山賦」는 문맥으로 보아 三灘이 壯元할 때의 작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作品의 내용이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으로 三灘의 詩名이 높아졌던 것만은 확실하다. 더구나 위 기록은 三灘의 交友였던 成任의 아우인 慵齋의 것인 만큼¹⁸⁾ 단순한 일화는 아닌 성실다. 그러면 이처럼 文名이 한 시대를 흔들었던 三灘의 爲人은 어떠한가?

먼저 三灘의 친구인 成任의 아우로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그를 대할 수 있었던 成任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16) 南孝溫, 『秋江冷話』

“姜仁齋希顔少有才藝, 晩年登揚州樓院, 有小詩三篇, 其一篇曰, 「有山何處不爲廬, 坐對青山試一嘘, 簪笏十年成老大, 莫教霜鬢賦歸隊」, 永川君定字安止, 見而拜之, 且批曰, 此詩逼眞太甚, 非徐則李, 時徐居正 李承召擅詩名爲定所服.” 이 기록은 『燃藜室記述』 卷之五, 世祖朝, 世祖朝名臣, 姜希顔條에도 실려 있다.

17) 『慵齋叢話』 卷之四

“有斯文李尹仁有仁兄弟過梨峴, 適君因醉徵服坐路旁, 二人以爲凡人而不下馬, 君使人招之曰, 汝見王孫何不禮焉, 汝是何人……問尹仁曰, 汝是何人, 答曰文士也, 曰誰人榜登第, 答曰吾壯元李承召也, 君曰汝知登白山賦乎, 尹仁誦之, 君頓首禮拜而送之.”

18) 三灘과 逸齋 成任과의 關係는 『眞逸遺稿』 卷之四, 跋文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후진으로서 문하에서 노닐며 훌륭한 광채를 입고 餘喬를 떠 마신 것이 하루이튿이 아니다. 공의 행동거지는 閒雅하고 風姿는 구슬과 눈처럼 맑고 깨끗하여 완연히 신선 가운데의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경모하여 片言隻字라도 얻게 되면 순수한 금과 아름다운 옥덩이 같이하여, 읊조리고 원상하며 손에서 놓을 줄 몰랐다.”¹⁹⁾

비록 위의 기록이 『三灘先生詩集』의 序文에 있는 것인 만큼 情實에 치우친 과장이 없지 않겠지만, 反面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더욱 事實에 가깝게 서술한 내용일 수도 있다. 어쨌든 成侁은 그를 ‘神仙中人’으로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록도 그의 됃됨이를 알려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문간공 이승소가 예조판서가 되었는데, 한 郎官이 난라다 술만 마시고 공무를 많이 곁하게 되자, 同列 중에는 내뺏으려는 자도 있었다. 문간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許丞은 오랫동안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였어도 장관이 차마 끊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낭관은 비록 長醉하기는 하더라도 께어 있는 때 또한 많은 죽 어찌 폐하리요.’ 하였다.”²⁰⁾

상당히 너그럽고 여유있는 三灘의 心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玉에도 티가 있다고, 三灘은 成宗으로 하여금 그 生父를 追尊하여 德宗으로 하고, 이어 宗廟에 합장토록 함으로써 아침의 累를 범했다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象村彙言』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성종이 생부를 추존하여 德宗이라 하였음은 선유의 정론으로 달한다면 당연히 송나라 英王이 濮王에게 한 것과 같이 할 것이어늘, 耐廟함에 이른 것은 옳바른 예가 아니었다. 추존하던 처음에 성종이 신하들에게 의논하였는데, 혹은

19) 『虛白堂文集』(앞의 책, 같은 곳)

“余以後進遊乎門下承休光而挹餘馥者非一日, 公舉止閒雅風姿玉雪, 宛如神仙中人, 人敬慕之得片言隻字者如精金美璞, 吟玩而手不能釋焉”

20) 徐居正, 『筆苑雜記』卷之二

“李文簡公承召爲禮曹判書, 一郎官日飲無何公務多闕, 同列有欲黜者, 文簡美曰, 許丞多時耳聾重聽, 長官不忍絕之, 今郎官雖長醉, 然醒時亦多, 又何廢焉” 같은 내용이 『燃藜室記述』卷之六, 成宗朝, 成宗朝名臣, 李承召條에 실려 있다.

가하다 하고 혹은 불가하다 하여 三司가 반대하기에 이르렀으나, 오직 李承召가 홀로 그것이 마땅함을 말하여 올린 疏가 심히 장황하였으니 성종이 비록 그의 말을 써서 마침내 追尊의 큰 일을 성취하였으나, 마음으로는 그의 아첨을 누추하게 여겨서 승소를 높이 쓰지 않았으므로, 벼슬이 二品에 그쳤을 따름이었다.”²¹⁾

요컨대, 三灘은 禮의 問題로 成宗에게 逢迎한 인상을 後世에 남기긴 했으나, 그의 生涯와 爲人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시대의 명망있는 文章家로 또 詩人으로, 그리고 品性이 너그러웠던 神仙中人으로 文學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人物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III. 詩論과 詩評

文集이 逸失된 상태에서 三灘의 詩論이나 詩評의 實際를 언급한다는 것은 不可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詩世界를 유지하기 위해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部分이라 생각한다.

詩論의 경우는 몇 사람의 詩集에 보이는 그의 序文을 통해 抽出해 낼 수 밖에 없다. 먼저, 三灘은 「送永川卿遊松京詩序」에서,

“우주는 높고 깊으며 바람과 구름은 변화를 일으키어 족히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흥금을 시원하게 할 것이니, 기운이 더욱 호방하며 생각이 더욱 기이하여서 그것이 나타나 시나 문장을 지으면 때에 끊임없이 속에서 울어날 것이며, 넓고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꼭 신의 도움이 있을 듯할 터이니, 높은 곳에 올라서 시를 지을 때에도 웅당 옛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 지은 시의 두루마리가 반드시 한 책을 이룰 것이니, 나는 장차 눈을 닦고 卿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²²⁾

21) 『然黎室記述』卷之五, 德宗, 德宗故事, 成宗追尊德宗條.

“成廟追尊自出爲德宗, 以先儒定論言之則當如宋英之讓王而已, 至於並宗入廟非禮之經也. 追尊之初, 上雜議于公卿或可或不可而三司至陳啓, 惟李承召獨倡言追尊之宜, 疏甚張皇, 上雖用其言卒成追崇之計, 而心醜其逢迎用承召不終官至二品而已”

22) 『續東文選』卷之十五, 序

“宇宙高深風雲變化, 尤足以暢舒精神, 疎蕩習襟, 氣益豪而思益奇, 發而爲詩

하여, ‘氣益豪而思益奇’ 한 詩를 주장하고 있다. 즉 豪邁 또는 豪放한 氣象과²³⁾ 奇特한 생각이 한데 어울은 詩를 永川卿에게 기대함으로써 三灘은 自身이 견지하고 있는 氣象論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氣’를 重視하는 詩論은 曹丕가 文以氣爲主의 文氣論을 제창한 이래 中國과 韓國을 막론하고 수많은 詩論家들에 의해 언급되어 온 것이다. 李奎報, 崔滋를 거쳐 三灘과 親密한 交友를 나눈 四佳에게서도 제일 重視된 詩論이다. 四佳의 詩論이 集約되어 있는 『東人詩話』를 보면 이 점은 쉽게 파악된다.²⁴⁾

이렇게 三灘이 豪邁한 氣象을 重視한 것은 形式인 文藻보다는 內容이 詩에서 더욱 重要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의 「四雨亭詩序」는 그의 이같은 詩論의 精髓가 들어 있는 글이라 판단된다.

“대저 그의 詩를 외우며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안될 것이다. ……곧 이 네 귀의 詩는 다만 자연의 경치에 미련을 가진 것 뿐이며, 그것이 詩經 3백 편의 취지에는 관제되는 바가 없다. 그렇다면 王孫이 이 네 귀절에서 취한 것은 무엇인가. 대체로 시를 감상하는 것은 말[馬]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말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것이 겹거나 누르거나, 암컷이냐 수컷이냐의 구별을 따지지 않고 자연의 묘를 알려하며, 시를 감상하는 사람은 그 어귀나 음운이 잘 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자연의 참 경치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만일 어구만 가지고 보려 한다면 곧 장차 高叟와 같이 고루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으리오. 이리므로 子夏는 예쁘며, 또 깃털하며, 회고 찬란한 시를 얘기하다가 禮가 忠信보다 나중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子思는 술개미와 물고기가 날고 뵈는 시를 인용하여 이치는 위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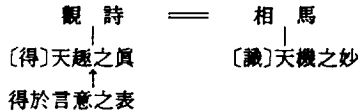
文, 混混乎其來之不窮也, 浩浩乎其成之若有神助也, 登高能賦, 當不讓於古之人, 而奚囊之什, 必成卷軸, 予將拭目以待卿之還也”

- 23) 詩話에서의 ‘氣’의 개념과 用例에 대해서는 沈浩澤, 「漢文學論에서의 氣의 概念」(韓國學論集 第8輯, 啓大 韓國學研究所, 1981)을 참조할 수 있다.
- 24) 氣象論에 대해서는, 張鴻在, 「東人詩話의 詩論研究」(東人詩話, 學友社, 1980), 趙鍾業, 「東人詩話研究」(大東文化研究 第2輯,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66), 全鏞大, 「東人詩話研究」(張德順先生華甲紀念,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를 참조할 수 있다.

래에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예쁘다, 또렷하다는 것이 당초에 예를 설명한 것이 아니언만 자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예를 알았고, 술개미나 물고기가 본시 이치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사는 이를 마무리해서 이치를 밝혔다. 이것은 모두 말 뜻 밖에서 얻은 것이요, 문장에 구애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 왕손이 네 귀절을 좋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어서 그것은 반드시 言詞밖에 그 자연의 참된 취미를 얻었을 것이다.”²⁵⁾

觀詩를 相馬에 比喻한 그의 詩論은 대단히 創意的이다. 윗 글의 要旨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III>



觀詩의 要諦는 그 어구나 음운이 잘 된 것, 즉 文藻를 보는 것이 아니라, 天趣之眞 곧 內容을 얻는 것이라는 詩論에서 앞서 주장된 三灘의 氣象論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그는 低俗한 文字나 浮華한 文章을 혐기했음이 「高靈府院君申叔舟文忠公墓碑銘 并書」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준수하니 보는 자는 그가 큰 그릇이 될 것을 짐작하였으며, 장성해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천하의 서적을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와같이 축적이 풍부하기 때문에 풀어서 시문을 만들게 되면 바닷물이 넘실거리 듯이 크게 奔放하여 저속한 문자를 짓지 아니하니……공이 천성이 高

25) 『續東文選』 卷之十五, 序

“夫誦其詩讀其書而不知其人不可也。……則之四句也，特留連光景之詞耳，其於三百篇之義蔑蔑無聞焉，然則王孫之有取於四句者，何歟？大抵觀詩如相馬，相馬者不求之驢黃牝牡之間，而欲識天機之妙，觀詩者不賞其文詞聲律之工，而欲得其天趣之眞，如以詞而已，則將不免於高叟之固矣，胡可與言詩乎，是以子夏論倩盼素綯之詩，而知禮之後於忠信，子思引鳶魚飛躍之詩，而明理之察乎上下，倩盼初非說禮，而子夏因之以知禮，鳶魚本不言理，而子思推之以明理，斯皆得於言意之表，而不局乎文詞者也，今王孫之悅於四句者，亦猶是也，其必有出乎言詞之表而得其天趣之眞者焉。”

明하고 더량이 淵深하며, 활달한 도량은 족히 용납할 수 있고, 호탕한 재주는 족히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그 학문은 章句를 벗어나서 성현의 뜻을 구하기 에 힘쓰고, 그 문장은 浮華를 버리고 옛 사람의 作을 따르며……”²⁶⁾

한편, 三灘이 行한 詩評活動은 『眞逸遺稿』 卷之四 跋文에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다.

“……인하여 二篇을 읽어 보니, 깊은 것이 柔和하고 盛한 것이 가락에 맞아, 마치 韶가 고르게 울리니 鳳이 위의를 갖추고 짐승이 춤추며, 바다가 넓고 아득하니 龍이 웅조리고 악어가 울부짖는 듯하다. 진실로 和仲이 詩를 지음에 奇特하다. 가히 배운 것이 富하고 기른 것이 크며 애쓴 것이 익숙하고 마음 쓴 것이 고통스러웠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가히 전할 수 있겠다.”²⁷⁾

三灘이 行한 批評의 樣式은 ‘冲然’, ‘蔚然’의 直叙的인 二字評과 ‘若’ 字를 使用한 比喩的 方式을 並用하고 있다. 즉, 和仲 成侃의 詩가 ‘冲然以和’ 하고 ‘蔚然以律’ 하다고 直叙하고 이어서 그 內容을 다시 ‘鳳·獸·龍·鼉’에 比喩하여 深化시키고 있다. 이러한 直叙와 比喩의 혼합된 비평방식은 四佳의 『東人詩話』에서도 간간히 보이다가 洪萬宗의 『小華詩評』에서 集大成되었음이 일찌기 言及된 바 있다.²⁸⁾ 이런 점에서 三灘의 詩評은 古典漢詩批評의 展開過程에서 中間時期的 位置에 處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特記할 사항은 三灘의 批評 역시 氣象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冲然以和’의 ‘冲然’은 ‘冲然之氣’ 곧 ‘浩然之氣’를 뜻하기 때문이다. 결국 三灘의 詩論과 詩評의 核心을 이

26) 『續東文選』 卷之二十, 碑名

“公, 自幼穎敏俊偉, 見之者知其爲大器, 及長嗜學, 於天下書, 靡不涉獵, 積之既厚, 發而爲詩文, 汪洋大肆, 不作俗下文字……公天性高明, 德宇淵深, 豁達之度, 足以有容, 豪宕之才, 足以有爲, 其爲學, 脫略章句, 務求聖賢之旨, 其爲文, 剪裁浮華, 追配古人之作……”

27) 『李朝名賢集』 2, p. 749.

“……因讀二篇焉, 冲然以和蔚然以律, 若韶鈞鏘鳴而鳳儀獸舞滄溟浩渺而龍吟鼉吼, 信和仲之於爲詩奇矣, 可見所學之富而所養之大, 用功之熟而用心之苦矣, 斯可以傳矣.”

28) 拙稿, 「漢詩批評의 形式에 對하여」(韓社大學 論文集 第11輯, 1981) 참조.

루고 있는 요소는 큰 氣象論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觀詩를 相馬에 비유하게 되고, 言詞의 밖에서 自然의 참된 취미를 얻어야 한다는 시감상의 요체를 터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詩風과 詩世界

批評家들이 指摘한 三灘의 詩風은 어떠한가를 알아 보자. 南龍翼은 『壺谷詩話』에서,

“삼탄 이승소는 은당하고 적실하다.”²⁹⁾

하여, 그의 詩風을 ‘妥適’한 마디로 요약했다. 한편, 成俔은

“陽城의 시와 문은 다 아름다워서 마치 공교한 匠人이 조각하여도 도끼로 찍은 흔적이 없는 것과 같다.”³⁰⁾

“시와 문이 다 우아하고 넉넉하다. ……이제 공의 유고 약간의 帙을 보니, 平淡하고 醞藉하여 반보를 걸다가는 또 활보한다. 큰 작품은 침착·조용하고 짧은 작품은 아름다와, 그것을 읽으면 마치 감자를 씹는 듯해서 오래도록 그 맛을 더해 아름다움이 물리지 않는다.”³¹⁾

하여, 三灘의 詩를, 다듬고 새겨도 文章을 침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優贍하고·平淡·醞藉한 것으로 評價했다. 그리하여, 그의 詩는 아무리 씹어도 그 맛이 물리지 않는 감자에 비유되었다. 그런데 申景濬에 의하면 ‘맛’이란 ‘뜻’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다.³²⁾ 李奎報도 일찌기 ‘意·氣

29) “李三灘承召之妥適”

30) 『慵齋叢話』卷之一.

“陽城詩文俱美，如巧匠雕鏤，自無斧鑿痕”

31) 「三灘先生詩集序」

“詩文俱優贍……今見公之遺稿若干帙，平淡醞藉而跬步又闊，大篇春容短韻要妙，讀之如啖蔗，久益其味靡靡不厭。”

32) 『旅菴全書』上冊，卷之八，雜著二，詩則

“味出於意者”

· '味'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條理있게 피력한 바 있다.

“시는 意를 주로 삼으니, 意를 잡는 것이 가장 어렵고 말을 맞추는 것은 그 다음이다. 意는 또한 氣를 주로 삼으니, 氣의 우열에 따라 意의 深淺이 생긴다. 그러나 氣란 천성에 달린 것이어서 배워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가 떨어지는 사람은 글 다듬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意를 앞세우지 않는다. 내체로 글을 짚고 다듬어 구를 아롱지게 하면 아름다움에는 틀림없다. 하나 거기에 심후한 意가 함축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볼 만하나 다시 씹어 보면 맛이 없어서 버린다”³³⁾

李奎報에 의하면, 씹을 맛이 없는 詩는 결국 氣象이 결핍된 詩로 판명된다. 기상이 빈약하기 때문에 深厚한 뜻을 함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成俔의 評은 三灘의 詩에 배어 있는 그의 氣象論을 옮겨 指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三灘의 詩 속에는 ‘意’, ‘氣’, ‘味’가 조화되어 있음을 注視한 批評인 것이다.

許筠도 三灘詩에 대해 批評한 바 있다. 『國朝詩刪』을 보면, 三灘의 詩가 5편 소개되어 있으며, 이 중 3편에 批評이 加해져 있다.

30 「美人圖」

틈이 나면 서로 바둑을 두면서
문득 봄의 고대에 바둑돌 더디 놓네
손으로 향기로운 땀 문지르니 뜻은 한이없고,
복숭아꽃 가지 위 괴꼬리는 지저귀네
(開來相與閒圍碁, 却被春嬌下子遲,
手拖香腮無限意, 桃花枝上囀鶯兒)
〔批〕 고운 시체 중에, 한 조각 저민 고기를 차츰 맛본다. (體體中稍嘗一鬮)

31 「早朝」

동화궁에서 누각을기 기다리니 서광이 일며,
수많은 문들이 차례 차례 열리네.

33) 『白雲小說』

“夫詩以意爲主, 設意最難, 綴辭次之, 意亦以氣爲主, 由氣之優劣, 乃有深淺耳, 然氣本乎天, 不可學得, 故氣之劣者, 以難文爲工, 未嘗以意爲先也, 蓋雕鏤其文, 丹青其句, 信麗矣, 然中無含蓄深厚之意, 則初若可觀, 至再嚼則味已窮矣.”

쌍봉이 멀리 바라 玉輦을 부촉하고
 九韶曲이 바로 맞이해 瑤臺에 올리네.
 향연은 전각 위에 안개처럼 날리며
 맑은 벽계소리 구름 새에 우뢰되어 들리네.
 성대가 당장 四海에 노래 불리니
 異國으로 하여금 보배 바치러 오게 하네.

(東華待漏曙光催, 萬戶千門次第開)

雙鳳遙瞻扶玉輦, 九韶還訝上瑤臺
 香煙殿上霧如霧, 清磬雲間響作雷
 聖代即今歌四海, 盡教殊俗奉琛來)

[批] 이로부터 침착·조용하다. (自是春容)

㉘ 「燕」

화각은 깊숙하고 발머리는 나직한데
 쌍지어 날며 지저귀다 또 깃든다.
 문밖 푸른 버들엔 봄바람이 저물고
 못둑 푸른 풀엔 보슬비가 어지럽다.
 [評] 세상에서 묘하다 칭하는 곳 (世所稱妙)

때로는 나비를 쫓아 대숲 언덕을 뚫고
 집 지으려 종일 마나리발 진흙 조은다
 몸^의탁할 곳 얻었으니 누가 업신여기랴.
 해마다 새끼 길러 날개가 가지런하다.

(畫閣深深簾額低, 雙飛雙語又雙棲)

綠楊門巷春風晚, 青草池塘細雨迷
 趁蝶有時穿竹塢, 壘巢終日啄芹泥
 托身得所誰相侮, 養子年年羽翼齊)

㉚ 「美人圖」는 神仙들이 바둑 두는 그림을 그린 作品으로, 분위기가 仙的이며 뜻이 대단히 곱다. 이 작품에 대한 허균의 批評을 보면, 저민 고기를 씹는 맛으로 그 '무한한 뜻'을 비유하고 있어, 역시 전술한 '意·氣·味'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㉛ 「早朝」에 대한 批文에서는 '春容'이란 評語가 보임으로써, 「三灘先生詩集序」에서 成倪이 말한 見解를 再確認시켜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頷聯과 頸聯에서 視覺과 聽覺을 對

비시킴으로써 睿容한 분위기를 창출해 내고 있다. ⑧ 「燕」에서는 自身의 素朴한 生活哲學을 제비에 比하여 감각적으로 표출해 내고 있어 注目을 끈다. 허균의 評文은 바로 이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緣楊門巷春風晚, 靑草池塘細雨迷」야말로 세상이서 묘하다 칭하는 곳이라 하여, 이 작품이 三灘을 代表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其實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이 부분을 또한번 評하고 있는 것이다.

“徐四佳는 오래도록 대제학으로 있었다. 그런 까닭에 같은 시대였던 姜晉山·李陽城·金永山은 모두 文衡을 주장해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다. 李陽城이 지은 제비〔燕〕시에

문밖 푸른 버들엔 봄바람이 저물고
못둑 푸른 풀엔 보슬비가 어지럽다

란 것은 꼭 당나라 사람의 시와 같다.”³⁴⁾

三灘의 詩「燕」의 頷聯이 唐詩風임을 極讚한 대목이다. 흔히 唐詩의 좋은 점으로 形式이나 格律에 사로잡히지 않고 內容을 充實하게 하려했던 點을 들곤하는데, 이런 점에서 三灘이 指向한 ‘天趣之眞’의 追求는 바로 唐詩風에의 傾向이라 할 수 있다. 허균은 그 점을 꿰뚫어 본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三灘이 詩의 外形인 綴辭보다는 內容인 意境을 重視했음은 ‘妥適’, ‘如巧匠雕鐫, 自無斧鑿痕’, ‘優贍’, ‘平淡醞藉’, ‘睿容’ 등의 評語를 통해 確證된다. 더구나 ‘艷體中稍當一瓣’에서 고기를 씹는 맛에 그의 詩風이 비유되고, ‘酷似唐人’에서는 唐詩風임이 지적된 것은 곧 三灘의 詩風이 氣象을 바탕으로 한 意境의 개척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確證시켜 준 結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諸批評의 內容은 바로 三灘이 강조한 ‘天趣之眞’을 달리 表現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34) “徐四佳久爲大提學，故一時如姜晉山李陽城金永山皆不得主文而先歿。李陽城之燕詩有緣楊門巷東風晚，靑草池塘細雨迷之句，酷似唐人”

그러면 이러한 詩風으로 쓰여진 三灘詩의 世界는 어떻게 펼쳐졌는가?
內容과 外形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內容上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仙界에 대한 憧憬이다.
이미 살펴 본 圖「美人圖」에서도 仙界의 분위기가 엿보였지만, 그 외의
많은 作品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검출된다.

圖「題畫婢」

향울 古篆 향로에 사르고 쌀쌀히 앉아
황정경 내외전을 모두 읽었다.
천진한 한 맛 더불어 말할 이 없어
그림 속에서 서로 대하매 바람을 마시는 신선일네.
(香爐古篆坐蕭然, 讀盡黃庭內外篇
一味天真無與語, 畫中相對飲風仙)

道家의 經典인 黃庭經을 읽고 天真한 맛을 그림 속의 매미와 더불어
말하는 詩人의 脫俗한 모습이 선명하다. 이런 詩人을 두고 ‘宛如神仙中
人’이라 評한 成倪의 卓見은 높이 살 만하다 하겠다.

圖「富林君松巖詩」

왕손이 워낙 신선 중의 사람이라
이 溪山을 사랑하여 기와집을 지었구나
구전단을 애써 만든 것 없이
산중에 저절로 장색약이 있는 것을
삼신산을 멀리 찾아볼 것 없이
風光이 절로 진세와 격한 것을
왕손이 길이 휘파람 불며 그윽함을 즐기니
눈 아래 계산이 모두 반가와 하는구나
흥겨우면 가슴 속의 기록한 것을 받아 내어
붓을 들어 유선곡을 지어도 보네.

(王孫自是神仙人, 愛此溪山來卜築
不須勸鍊九轉丹, 山中自有長生藥
不須遠覓三神山, 風光自與塵凡隔)

王孫長嘯樂幽獨，眼底溪山皆動色
興酣吐出胸中奇，揮毫試作遊仙曲)

王孫인 富林君이 溪山에서 神仙처럼 노니는 것을 부러워 한 詩이다. 이 곳 溪山이야말로 長生藥이 있고 塵世와 격한 곳으로 그대로의 仙界이니, 멀리 三神山을 찾을 필요 없고 九轉丹을 애써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三灘에게 있어 仙界란 遊仙曲을 짓고 놀 수 있는 現實 속의 山인 것이다. 그러기에 別世界와 같이 찬란한 中華의 文物을 보고도 仙境에 온 듯한 감상에 빠지곤 한다. ①「二月十二日入京十四日朝謁奉天門」에서,

「이른 아침 자신전에 조회를 하니,
이 몸이 바로 仙境에 온 듯」
(早起朝紫宸，恍若登蓬瀛)

하다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仙界를 찾기를 그치지 않는다.

⑥「仙山圖」

신가의 물색이 아직도 의연하여
경림, 요초가 어찌 저리 아롱진고
신령스런 풀색이 대부분 불사약
내가 캐어다가 紅顏을 멈추려 하나
못 신선들이 인간의 떠듬을 싫어하며
머리를 조아려 위에 호소하면 하늘이 웅당 아끼리니……
(仙家物色尙依然，瓊林瑤草何斑斑
靈苗多是不死藥，我欲採之留朱顏
直恐群仙厭殖阜，稽首上訴天應慳……)

이처럼 仙界를 동경한 三灘인 만큼 그가 詩論에서 ‘天趣之眞’을 追求한 사실은 當然한 歸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點에서 그의 詩世界는 詩論과 表裏를 이루고 있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둘째, 內容上 특진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大隱의 憧憬이다. 옛말

에 큰 은사는 朝廷과 저자에 숨고, 작은 은사는 산이나 수풀에 숨는다 했다. 三灘은 벼슬길에 나섰지만, 大隱이 되고자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의 「洗心亭記」를 보면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오직 物과 나 자신이 대립되지 아니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치우침이 없고, 능히 物에 응하여 물에 끌림이 없는 연후에야 朝市나 산림이 모두 마음을 씻는 곳이 아님이 없어, 맑고 虛明한 정체가 자연 발굴될 것이다.”³⁵⁾

하여, 大隱이 될 수 있는 要諦로 ‘物我不立, 好惡無偏’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大隱이 되기는 그렇게 容易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㉓ 「客愁」

鍾鼎은 일찌기 斗筲에 돌아가지 않았고
저자와 조정은 끝내 구름과 숲을 멀리한다.
(鍾鼎不曾歸斗筲, 市朝終是遠雲林)

㉔ 「次姜晉山遯津寬住持專上人詩」

부질없이 저자와 조정에서 大隱되려 하였거니
고향 산의 원숭이와 학이 정히 부끄러워 하리라
(漫欲市朝成大隱, 故山猿鶴定相差)

㉓, ㉔詩를 통해 三灘은 大隱의 동경이 한낱 수포로 돌아 갔음을 是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大隱이 되고자 애를 쓴 흔적임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理想을 現實 속에서 實現하고자 하는 것이 大隱이라면 三灘의 그러한 努力은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三灘이 仙境을 동경한 것은 小隱指向이라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山林이나 朝市는 모두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곳이었으나, 大隱되기에 실패함으로써 그는 仙界指向으로 줄달음친 것이라 생각

35) 『續東文選』 卷之十三, 記

“……唯夫物我不立, 好惡無偏, 能應物而不攔於物, 然後朝市也山林也, 莫非洗心之所, 而湛然虛明之體, 自然呈露矣.”

된다. 이런 점에서 三灘에게는 隱과 顯이 들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것이다. 隱과 顯이 未分化된 狀態라 할 수 있다. 眞隱者라야 顯에 능할 수 있고, 眞顯者라야 隱에 능할 수 있다는 理論³⁶⁾에 合當한 人物이 三灘이 아닌가 한다.

셋째, 外形上의 特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視覺, 聽覺의 活用과 鮮명한 色相의 對比이다.

㉑「秋懷四首贈金文學壽寧求正」

① 일천 집에 밤이 고요하매 다듬이 소리 급하고
만리에 구름이 깊으매 기러기 그림자 희미하다.
(千門夜靜砧聲急, 萬里雲深雁影微)

② 처마 끝의 달빛은 한없이 좋고
풀 속의 벌레 소리는 원망스레 들려온다.
(簷外月華無限好, 草根蟲響不平鳴)

③ 누수 북은 뚝뚝 뉘엿뉘엿 별원에 전하는데
기쁜 바람은 딸각딸각 차가운 가지물흔든다.
(漏鼓擘々傳別院, 商飆浙々撼寒條)

「秋懷」의 第1·2·3首 중 頷聯만을 뽑아 보았다. ①을 보면 안팎은 ‘고요한 밤에 다급히 들려 오는 다듬이 소리’로 밤의 靜寂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가을에 느끼는 情懷를 心情的으로 表出하고 있으며, 바깥쪽은 ‘희미한 기러기 그림자’를 다듬이 소리에 對比시켜 쓸쓸한 가을의 서정을 視覺化하고 있다. ②에서도 이러한 視覺·聽覺의 이미지를 對比시켜 詩人의 抒情을 감각화시키고 있어, 三灘詩의 繪畫性과 音樂性을 充分히 엿보게 한다. ‘처마 끝의 달빛’, ‘풀 속의 벌레소리’가 선명히 感覺的 對比를 이루며 가을밤의 서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의 경우는 특히 바깥쪽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구절 안에 ‘딸각딸각’이

36) 옛 선비들의 去來隱顯하는 모습의 유형에 대해서는 崔信浩, 「文集에 나타난 선비들의 自然觀」(韓國古典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을 참조할 수 있다.

란 청각과 ‘차가운’ 이란 촉각, 그리고 ‘흔들리는 가지’의 視覺이 한데 어우러져 共感覺的 이미지의 效果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가을에 느끼는 정회를 드러내기 위해 詩人은 3가지의 感覺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㉔ 「秋晚登城北樓」

십년 동안의 나그네 정황은 천 줄기의 눈이요
만호의 다듬이 소리는 한 잎사귀의 가을이네
(十年旅況千莖雪, 萬戶砧聲一葉秋)

이 부분도 ㉔의 頷聯이다. 늦가을에 城北樓에 올라, 안팎에서는 그 동안의 나그네 설움을 ‘천 줄기의 눈’으로 시각화시키고 있으며, 바깥쪽에서는 그 설움을 ‘다듬이 소리’라는 청각으로 낙엽지는 가을의 정황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繪畫性과 音樂性의 적절한 詩化는 三灘詩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鄭圃隱의

「매화 핀 창에는 춘색이 일찍 오고
판자 지붕엔 빗소리가 한결 많다」
(梅窓春色早, 板屋雨聲多)

라는 구절에 대해,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훨훨 날아갈 듯하여 시를 지은 그 사람과 같다”³⁷⁾

했으며, 李晬光은 『芝峯類說』에서 ‘絶實’하다고 평한 바, 이것은 이 作品의 視覺과 聽覺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출한 점을 높이 산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三灘詩를 代表할 수 있는 작품은 역시 독자의 視·聽覺을 건드려 주는 것들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㉕ 「題花簇贈僧」

한 나무의 한가로운 꽃이 눈을 흠칠듯 흰데,

37) “翩翩豪舉類其人焉”

상으로 깃든 비단새는 성홍에 물들었다.
 곁에 사람들은 모두 단청으로 보면서
 원래 그 색이 바로 공인 줄 모른다.
 (一樹閑花儔雪白，雙棲錦羽染猩紅
 傍人盡作丹青看，不悟從來色時空)

이 作品은 佛敎에서 말하는 ‘色則是空’을 論한 것으로, ‘色’의 顯現인 ‘白色雪’과 ‘猩紅’의 색상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한 폭의 그림을 詩化함으로써,

“시는 소리가 있는 그림이요 / 그림은 곧 소리 없는 詩다 / 예로부터 詩와 그림은 한가지로 / 그 경중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없다.”³⁸⁾

는 理論에 도달하고 있다. 詩에서 이와 같은 色相의 對比가 곧잘 運用되는 것은 詩의 繪畫性을 살리기 위한 試圖인 것이다. 일찌기 蘇東坡가 王維의 詩와 그림 사이에 不可分의 깊은 관계를 천명한

“라철의 시를 음미하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마힐의 그림을 관찰하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³⁹⁾

라는 글에서 연원한 ‘詩中有畫’라는 개념은 嵇叔夜의 ‘詩畫一也’⁴⁰⁾에 까지 到及하여, 그 후 많은 文人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三澗詩에 極明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繪畫性도 그 影響이라 보아 無妨하다. 다음 詩들에서도 그 회화성은 色相의 對比를 통해 示출되고 있다.

Ⅲ 「城上」

서리가 거둬야 강가 단풍잎의 붉은 빛은 암담하고,
 하늘이 맑으면 구름 도는 옛부리의 푸른 빛은 참치하다.

38) 成侃, 「寄姜景愚」(『東文選』卷之八, 七言古詩)
 “詩爲有聲畫, 畫乃無聲詩, 古來詩畫爲一致, 輕重未可分毫釐”

39) 「東坡志林」
 “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

40) 『補閑集』卷中
 “陳曰蘇子瞻品畫云, 摩詰得之於象外, 筆所未到氣已吞, 詩畫一也”

(霧重江楓紅暗淡，天晴雲岫碧參差)

㉒ 「題齋壁」

꽃 난간에 발을 걸어 흰 달을 맞이하고,
작은 못에 물을 대어 푸른 하늘을 들인다.
(花檻捲簾迎素月，盆池貯水納青天)

㉓ 「題金參判子固紐雙溪齋二首」

밭에 가득한 붉은 비는 떨어지는 복숭아꽃이요,
땅을 덮는 푸른 연기는 긴 버들가지더라.
(滿簾紅雨桃花落，幕地青烟柳線長)

㉒에서는 ‘紅’과 ‘碧’이, ㉓에서는 ‘素月’과 ‘青天’이, 그리고 ㉒에서는 ‘紅雨’와 ‘青烟’이 조화있게 對比되어 詩의 繪畫性を 살리고 있다.⁴¹⁾ 이러한 詩의 음악성과 회화성이 詩人의 情感과 혼연히 융화되었을 때 옛 사람은 神韻이 감도는 좋은 詩라고들 評한 점을 감안할 때, 三灘의 詩도 이런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줄 믿는다.

V. 結 語

文集이 傳하지 않는 상태에서 三灘의 詩世思를 살피고 詩史的 位置를 點檢한다는 일은 어쩌면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東文選』所載의 詩文과 詩話集에서 散見되는 그의 詩風에 대한 評文들을 모으면, 이러한 작업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三灘 李承召는 비록 漢文學史의 記述에서 거의 소외당한 인상이 짙지만, 오히려 朝鮮 初期 詩壇에서 獨自의인 詩論과 詩風을 지닌 詩人으로 文學史에 浮刻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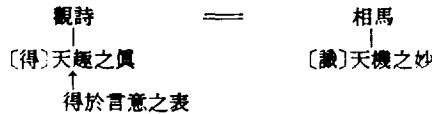
이에 지금까지 論議한 事項을 要約하면서 本稿를 맺을까 한다.

첫째, 三灘은 徐居正, 金守溫, 姜希孟과 더불어 朝鮮 初期 詩壇을 代

41) 詩의 繪畫性에 대해서는 柳晟俊, 「紫霞詩의 畫學的 考察」(韓國漢文學研究 第1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76)과, 鄭良婉, 「李德懋詩의 繪畫性에 대한 一小考」(韓國漢文學研究 第3~4輯)을 참조할 수 있다.

表한 人物이었다. 集賢殿 出身의 學士로 賜暇讀書하는 영광을 누린 그는 當時에 文章으로 名世하였다. 또한 행동거지가 閒雅하고 風姿가 구슬과 눈처럼 맑고 깨끗하여 완전히 신선 가운데 사람 같았다. 性品 역시 너그러워 部下를 사랑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둘째, 三灘의 詩論과 詩評의 核心은 氣象論이다. 이를 바탕으로 觀詩를 相馬에 비유하고, 言詞의 밖에서 自然의 참된 취미를 얻어야 한다는 詩感賞의 要諦를 提示하였다.



즉, 위와 같은 그의 詩論은 상당히 創意的인 것으로, 이것은 그의 詩世界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詩評의 경우도 直叙의 批評과 比喻的 批評을 并用함으로써 古典批評史의 중간 단계에서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三灘의 詩風에 대한 諸批評家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表 IV> 三灘의 詩風에 대한 批評

批評家	出典	批評對象	批評內容
南龍翼	『登谷詩話』	三灘詩	妥適
成 倪	『慵齋叢話』	詩文	如巧匠雕鏤, 自無斧鑿痕
	「三灘先生詩集序」	詩文 詩	優隴 平淡蘊藉而跬步又闊, 大篇春容, 短韻要妙
許筠	『惺叟詩話』	「燕」의 頌聊	酷似唐人
	『國朝詩刪』	〃 「美人圖」 「早朝」	世所稱妙 體體中稍當一擧 自是春容

〈表 IV〉를 통해서 그의 詩風은 氣象을 바탕으로 한 意境의 개척에 있었으며, 唐詩風에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넷째, 三灘의 詩世界는 크게 세 가닥으로 放射되고 있다. 곧 仙界에 대한 憧憬, 大隱에의 憧憬 그리고 視覺, 聽覺의 이미지를 원용한 音樂性, 繪畫性의 表出이 그것들이다. 前二者는 서로 表裏의 關係를 이루는 것으로 小隱과 大隱의 關係임을 보았다. 그리고 視覺, 聽覺의 活用과 선명한 色相의 對比는 그의 詩에 音樂性和 繪畫性이 넘치도록 한 要因이다. 三灘詩를 代表할 수 있는 特質로, ‘詩畫一如’ 思想을 구체적으로 實現한 結果라 여겨진다.